



전남도·전남개발공사·BS그룹 등 민간 합작 프로젝트
‘정원’·‘인간’·‘스마트 시티’·‘신재생 에너지’ 컨셉으로
구성·삼호·삼포지구 1024만평에 미래도시 표준 제시

2030년 12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영암과 해남 사이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슬라시도 대학교에 오르는 기업도시 ‘슬라시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슬라시도에 들어서자 20여년 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미래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영암호와 서해, 금호호를 잇는 ‘물길’과 도시를 관통하는 군도21번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숲길’, 아홉개의 정원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길’이 어우러진 슬라시도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미래도시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슬라시도 내부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적 모빌리티가 온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위로 눈을 돌리자 푸르른 녹음이 한 눈에 들어왔다. 9개의 거점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꾸며진 슬라시도는 어느 장소에서든 나무와 꽃 필듯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슬라시도 내 AI 데이터 센터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부지를 확보한 국내외 내로라하는 A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터 인프라 갖추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주거지, 국제학교, 의료시설, 특급호텔, 테마파크 등 대도시가 부럽지 않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정원’ 구성지구

‘태양의 정원’ 98MW급 태양광 발전단지 가동 국내 최대·전남 최초 민간정원 ‘산이정원’ 조성 ‘3GW 규모 슬라시도 AI슈퍼클러스터’ 미 투자회사 협약 슬라시도 내 전력 자체 조달 가능...AI데이터센터 최적

‘골프’ 삼호지구

골프특화 관광레저도시·대중제 골프장 63홀 운영 중 108홀 프리미엄 파크골프장·페어웨이 빌리지 추진

‘자동차’ 삼포지구

국제자동차경주장·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구축사업 진행 인공지능 등 해양레저 체험 벨로시티 리버파크 조성

슬라시도는 탄소중립을 넘어선 탄소예매출 도시로 거듭난다. 우선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신기술 녹색산업선정을 위해 연구개발, 실증화, 판로개척 등 탄소중립 전 주기를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을 홍보,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슬라시도는 도시 전체를 누비는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오갈 수 있다. 슬라시도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에 선정된 바 있다. 관광객과 입주자, 산일용지 방문객들은 친환경에너지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타고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슬라시도는 또 라이더와 ICT 기술로 주요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 안전한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계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관광, 방편, 광역 데이터허브 등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가 구축된다.

구성지구에는 레저, 교육, 정원, 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주거공간이 마련된다. 용적률 100%로 도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레저, 헬스케어 등의 접근성이 높다. 이밖에도 특급호텔, 세계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상공원장, 종합병원도 들어선다.

교육시설인 국제학교도 설립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해남군과 함께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RCS(Redlands Christian School)의 슬라시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호지구는 골프특화 관광레저도시다. 사우스링크스 영암, 코스모스링크스 등 대중제 골프장 63홀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앞으로 108홀 규모의 프리미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내 빌드 골프연습이 가능한 페어웨이 빌리지, 친수환경을 갖춘 시니타타운 등을 건립한다.

자동차문화 중심 도시 삼포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조성됐으며,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센터가 운영을 시작해 자동차 부품개발, 기술 실증 등 튜닝산업 육성 사업과 사이버 보안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2단계 사업으로 경주장 배후부지에 인공레프팅, 카누슬라럼 등 역동적인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벨로시티 리버파크를 조성한다.

전력망 공급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전력 등과 ‘슬라시도 데이터센터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면서 154kV급 변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36년 완공 예정인 서남해안 HVDC를 통해 수도권 국가전략첨단산업 기업들에 잉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슬라시도 구성지구 전경.



태양과 에너지, 인간의 의미를 담은 문양으로 조성된 태양의 정원 중앙부.



98MW 태양열 발전 설비와 다채로운 식물이 식재된 태양의 정원 전경.



산이공원 전경.

슬라시도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생태공간으로 둘러쌓여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슬라시도 안에서는 어디서나 녹음을 만끽할 수 있다. 슬라시도는 ‘물길 사람길 숲길’이라는 정원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순환의 도시를 형성한다.

특히 슬라시도는 매립 공사 중 만든 군도21호선을 중심으로 거점 공원과 주요지점을 선형공원으로 연결한다. 슬라시도에는 모두 9개의 거점공원이 조성되는데, 본래 산이면이 보유한 지형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슬라시도를 대표하는 정원은 ‘산이정원’[사진]이다. 현재 국내 최대의 민간정원인 산이정원은 지난해 5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했다. 전체 16만평 부지 중 우선 개장한 5만평 규모에는 ‘기억’ ‘미래’ ‘생명’을 주제로 ▲맞이정원 ▲약속의 숲 ▲물결정원 ▲가든뮤지엄 ▲생명의 나무 ▲날씨사냥꾼의 정원 등이 조성됐다.

산이정원의 초입에는 방문객들을 반기는 ‘맞이정원’이 조성됐다. 바다와 섬, 낮은 구릉의 산 등 산이정원 주변의 옛 풍경을 컨셉으로 한 게이트를 통과하면 4개의 섬까지, 꽃과 역사물결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맞이정원에 들어서면 바람을 타고 날아든 꽃내음을 만끽할 수 있다.

가든뮤지엄은 미래의 새로운 문물을 상징하는 은빛 선형을 강조한 외형 디자인의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로, 내부에 전시장, 카페, 회의실 등이 들어서 정원문화에 대해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친환경 정원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이정원을 걷다 지친 관광객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산이정원 내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약속의 숲’은 기후 위기에 대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성된 정원이다. 지난 2023년 BS그룹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2050그루의 탄소 저감 나무를 심는 ‘약속의 숲 식목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린이 3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의 편지’를 타임캡슐에 담아 약속의 숲에 함께 봉인했으며, 오는 2050년 개봉할 예정이다.

꽃의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그려낸 ‘물결정원’은 다년생의 꽃

과 풀, 상록나무들이 사계절 다양한 모습으로 대지를 수놓는다. 또한 ‘동화의 정원’, ‘하늘마루’, ‘산이재플’ 등 각 정원에는 조형 미술품과 파빌리온,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방문객을 맞이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이반도의 자연과 지형을 담은 넓은 초지와 나즈막한 구릉을 꾸며놓은 ‘놀이정원’과 자연의 다양한 에너지 정원에 적용하는 정원사가 돼 비와 바람, 태양, 안개 등을 체험하는 ‘날씨 사냥꾼의 정원’, 나무 모양의 미로 정원 ‘생명의 나무’ 공간도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산이정원은 기존 정원들과 달리 자연 본연의 색을 살리는 것을 지향한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장하고 변화하는 정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정원,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여운을 남기는 정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산이정원에서 접하는 식물들은 어린나무부터 다른 모형으로 길러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구성지구 태양광 발전소 안에 있는 태양의 정원은 에너지와 자연, 인간의 공존을 영상화한 모습으로 설계됐다. 약 4만2000평 98MW 태양열 발전 설비 게이트 자리한 태양의 정원은 슬라시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원형 모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삼자대로는 흥거시 나무와 배롱나무를 식재해 압도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불룩 솟은 중앙부에는 나선형의 산책로와 함께 전망대로 설치됐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사계절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슬라시도에는 하늘정원, 물결정원, 별빛정원, 달빛정원, 대지의 정원, 바람의 정원, 길 정원 등 산이면 구성지구의 구성구경(九景九觀)을 주제로 정원이 들어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포지구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목’

국내 유일 ‘세계 1등급 서킷’ 보유
레이싱·마라톤·성능테스트 등 활발
미래도시 사업 추진에 시너지 기대

슬라시도 개발로 삼포지구 내에 위치한 국제자동차경주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투자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비판을 받았었는데, 삼포지구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시너지 낼 것으로 보인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 42개 1등급 서킷 중 국내 유일의 서킷으로, 포틀랜드(F1)는 물론 F3, GT 등 모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에서 9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스즈카에 이어 두 번째로 긴(6.615km) 모터스포츠 전용 경주장으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규정을 만족하는 안전한 트랙 구조와 레이싱 건드롬 빌딩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레이싱 대회를 비롯해 마라톤, 사이클, 두에슬론, 전국대학생 포뮬러 자작자 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도 활발히 개최돼, 공공체육시설로서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 GT’(Grand Touring)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드риф

트 등 다양한 종목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로 개막식, 그리드워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전남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경주장은 현재 연간 250만 이상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및 동호회 행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자동차 성능 테스트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연간 10만~15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직접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만 약 60억~100억원이다.

전남도는 슬라시도경기장과 함께 자동차튜닝벨리를 계획하고 있다. 15만3000㎡ 부지에 차 부품과 튜닝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에 나선다. 또 전남도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조성해 삼포지구 일대를 자동차문화중심 도시로 만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